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예지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 도착하던 날 교내 안 활짝 핀 벚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시작될 일본 생활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며 두근거리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저는 “무엇이든 도전해 보자!” 다짐하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약 6개월간의 일본 유학 생활이 곧 끝나간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이론과 전문사 과정에서 무용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오차노미즈 대학원 비교사회문화학과에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하는 귀한 기회를 얻어 한 학기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춤과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서 유학을 희망했던 이유는 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워 견문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춤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초고령자 사회가 일상이 된 일본에서는 고령자들과 함께 춤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에는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 본 적이 없어 정규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것이 춤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전공정규수업 과목 중 동작학실험연습과, 스포츠건강실습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동작학실험연습 수업에서는 EMG, 초음파, 지면반력계, 그리고 동작 해석 시스템 「**Frame - DIAS 6**」 등 다양한 실험을 한 후 실험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적으면서 각 신체의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는지 배울 수 있어 나의 몸과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건강 실습수업에서는 요가, 달리기, 그리고 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나에게 알맞은 운동 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말고사 과제로 제출했던 나의 신체에 알맞은 트레이닝 프로그램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후 나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관찰한 후 에세이를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기말고사 과제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에 맞는 운동이 아닌, 나의 신체에 알맞은 맞춤 운동법을 스스로 익히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지도 교수님인 미즈무라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께서 주체하시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댄스 워크숍에 참여하고, 고령자 댄스 교실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몸을 풀고, 춤을 함께 추면서 춤이 우리의 삶에 주는 큰 도움과 영향력에 대하여 몸소 느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공수업 외에도 유학생을 위한 특별수업인 일본어 문법 및 문화를 배우는 수업에 참여하여 일본어를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수업 외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내에 있는 다도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것입니다. 다도부에서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기 전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을 하는지에 대하여 모든 준비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다도부 활동을 하면서 함께 다과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통적인 역사가 남아있는 다실에서 다도회에 모인 손님들에게 직접 차와 다과를 드리는 특이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학교 열심히 밖으로 나가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생활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요코하마에서 음악페스티벌에 참여하거나, 축제에서 봉오도리 춤을 추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경험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개월간 유학 생활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학생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매월 회고록을 읽고 좋은 추억이 되는 이벤트 등을 알려주신 미즈무라 교수님과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지도해 주신 유학생 홈룸 수업의 하기와라 선생님, 국제과의 오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